

6·3 대선 주자에 듣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정·지방 행정 모두 경험… 가장 준비된 후보”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라며 “미래 먹거리와 우리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임자이자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본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 ‘대선주자 인터뷰’에서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10개의 대기업 도시 조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계기는?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다. 오랫동안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 왔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우리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30년 넘게 쌓아온 글로벌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 이런 면에서, 경제·통합·글로벌에서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이다.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경제 위기와 사회 갈등의 극복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7공 화국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출마했다.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등 발목 잡는 후진 정치 뜯어고쳐야 패러다임 전환

‘지역균형 빅딜’…지역 자생력 키워 국가균형 발전 모색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 정치세력을 포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기 단축이라는 회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돼 새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후보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강점이 있다면?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중앙정부에서 국가비전과 국가 운영 전체를 다뤘던 경험이 있고, 아울러 지방정부에서 도민들과 호흡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직접 실행해 온 ‘양수겸장’ 후보다. 정치적 계파나 조직이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조직이다. 이념과 당파를 초월해,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당면과제의 해결 방안은?

△정치개혁 없이,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은 정치가 바뀌어야 바뀔 수 있는 만큼, 경제와 국가의 발목을 잡는 후진 정치는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3년 반 전 단기필마로 정치를 시작했다. 계파에 대한 부채에서 자유롭다. 기득권 싸움에 휘말릴 일이 없는 제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율자로 나서겠다. 미래비전과 아젠다를 만들고 실천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 왔다. 여야, 진보-보수와 협의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인생을 살아왔다. 경제운영의 경험과 위기극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낮은 자세로 더 귀 기울이고, 더 대화하며 많은 국민이 바라는 안정과 번영, 포용과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경기도지사로서 부임한 후 지방분권 실행을 고민해왔다.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



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개헌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실과 국회도 세종시로 옮기는 동시에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이전했으면 좋겠다. 꼭 세종일 필요는 없다. 서울에서 이전해,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일기 초기에 실천하겠다. —지방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은?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은 인구 유입이다. 그러

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과거 수준의 인구 증가는 불가능하다. 세계가 인구 경쟁 중인 만큼, 타국에서의 인구 유입 또한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일자리와 교육에서 나온다.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 ‘10개의 대기업 도시’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것이다. 일본 도요타사의 사례처럼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확산하면 지역의 삶이 변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10개의 서울대’가 파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대학병원은 특수의료 분야를 중점 육성하게 된다. 세종·충청 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삶을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

—김동연은 한마디로 무슨 대통령?

△김동연은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철우 “K-밸리 조성, 광주 미래산업 수도로”

전국 현장 투어로 호남 찾아 AI·교통·청년 등 비전 제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가 16일 전국 현장 투어 일정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찾아 호남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역임 시 ‘동서 화합 포럼’을 만들어 양 지역의 교류와 화합의 물꼬를 트고, 영·호남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면서 “광주와 전남을 찾는 것도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호남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약속이자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간직한 도시이자,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며,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로 불리며 문화와 예술의 중심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도시”라며 “민주주의의 중심이었던 광주가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대를 이끌어갈 때”라고 광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을 진짜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권력을 나누고, 광주는 산업과 일자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핵심 기조인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철학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영호남 상생의 상징으로 불리는 ‘달빛철도’의 조기 추진과 송정과 광주역을 잇는 광주선의 지하화를 약



속했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서, 남부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 “영호남이 철도로 연결되면,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주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잠재력도 높이 평가하며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업융합 K-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광주를 대한민국의 대표 AI 도시로 키워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쇼핑몰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을 앞두고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교통 대란’”이라며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망을 확장하고, BRT 등 대중교통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시 방문을 마친 뒤 전남도의 핵심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전남은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집약된 땅인 만큼, 전남을 국가 성장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남은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의료 공백과 응급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망국적인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주, 순회 경선 돌입…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정권교체”

12일 간 3파전 경쟁…공명선거 실천 서약 공정경쟁 다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16일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둘러싼 12일간의 3파전 경쟁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경선 첫 일정으로 나흘간 당원 대상 총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오는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는 이날 후보 등록 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

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지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을 것과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 여의도서 ‘대선공약 세일즈’

‘주간 여의도 집무실’ 가동

각 정당 만나 공약 등 제안

‘광주 공약 핵심프로젝트’

AI 모델시티 등 반영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며 ‘대선공약 세일즈’에 나섰다.

강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 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 행영’에 전례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대선 정국 속 인공지능(AI),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얻고,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하고, AI모델시티 등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8일 인공지능(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광주의 제안’에는 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조성,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권 설립,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만나 광주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담은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광주~대구 달빛철도 신속 추진,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광주시가 광주 시장에 대선공약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시당으로부터 공약계획을 받아 지역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 모델시티,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광주시 대선공약 컨셉이 괜찮은 것 같다”며 “지역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열고 대

선공약 세일즈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겠다”며 “대선에 지역공약이 반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5년 후, 10년 후가 결정된다. 지자체장이 대선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대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광주시 살림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열고 대선공약 세일즈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겠다”며 “대선에 지역공약이 반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5년 후, 10년 후가 결정된다. 지자체장이 대선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대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광주시 살림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힘 1차 경선후보 8명 압축…‘4강전’ 스타트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경선 참여자가 8명으로 확정됐다.

이들 가운데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압축하는 ‘예비경선’이 오는 22일 열린다.

16일 국민의힘은 당 대선후보 경선 신청을 낸 11명에 대해 서류 심사를 벌인 결과 8명의 1차 경선 참여자를 확정했다.

김문수 전 고교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 순)이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 맞는 자질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이들 동안 접수한 경선 신청에는 모두 11명이 서류를 냈다.

당 선관위 심사에서 3명(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이 탈락한 것이다.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 당원 인지도, 공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심사를 통과한 8명을 다시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를 시행해 오는 22일 결과를 발표한다. 경선 방식은 역선택 방지 장치가 마련된 ‘100% 국민 여론조사’다.

4강전에 진출할 유력 후보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인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거론된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안철수·나경원 등 다른 후보들이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은 예상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